



# 젠더이슈 Gender Issue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2021년 제12호

## 디지털 기술 사회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

김주혜(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디지털 성별 역량, 청소년기 이후에 “여성 < 남성”으로 역전

“ICT 산업 분야, 여성은 여전히 부족”

“ICT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노력”

“여성시민의 디지털 이해증진, ICT 청년여성 지원을 함께”

전문보기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이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동의 내역을 거부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693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대표전화 02-810-50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민서비스현장 바로가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ot line 02-810-540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 디지털 기술 사회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

김주혜(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며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일상생활과 세계 경제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 대면 활동과 물리적 공간 활용에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활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소비자 개인은 온라인 채널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기업은 디지털 연계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기존의 추세를 고려했을 때 각각 4년, 7년 디지털 기술 시대를 앞당긴 셈이다. 산업계 전반은 이미 ‘당겨진 미래’가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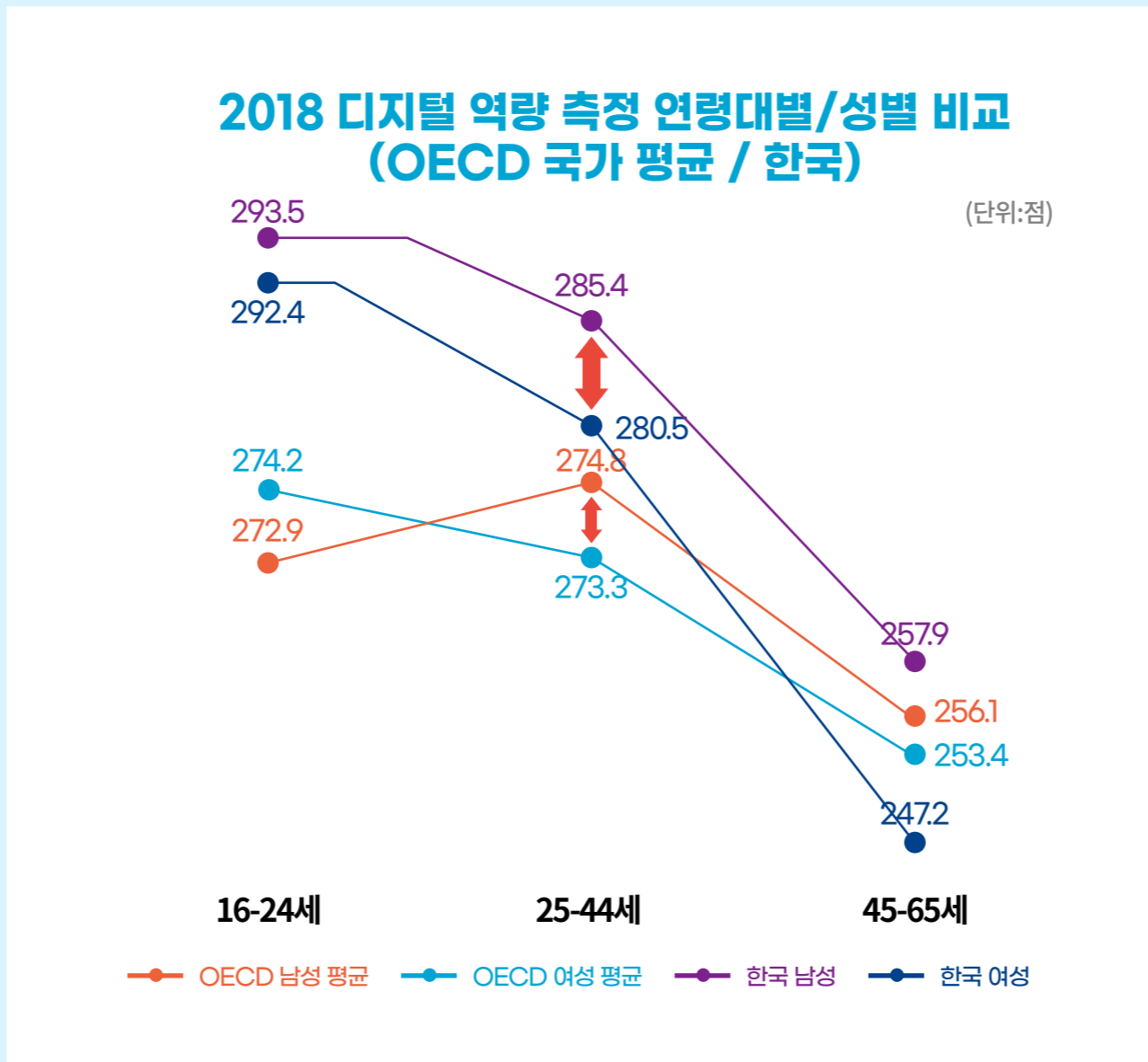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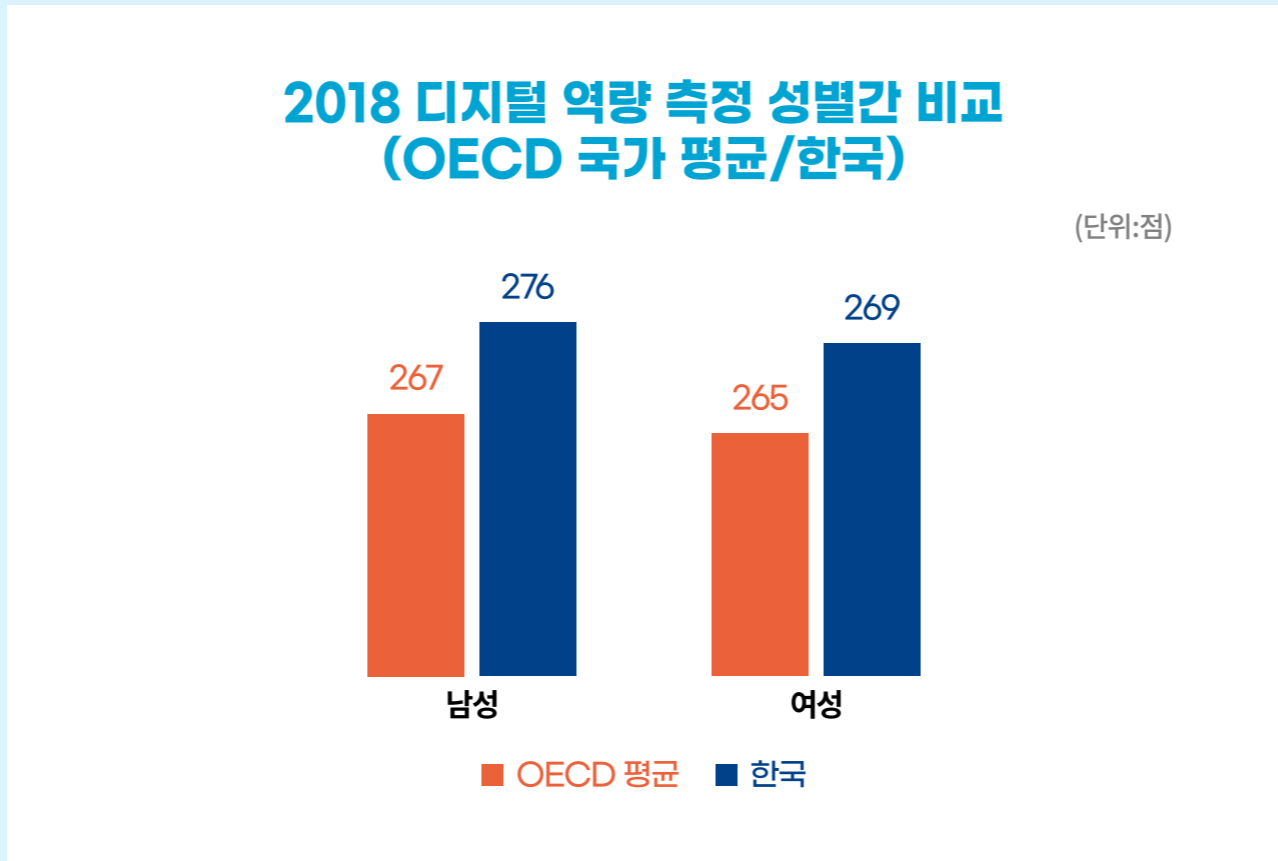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일상이 된 지금, 어느 때보다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수준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과 더불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관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역량이 시민 필수 역량임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역량프레임워크(영국)를 개발하거나, 디지털 포용지수(호주)를 측정하여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는 유사한 지표 개발이나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발표와 더불어 정부 및 민간 기관 등에서 디지털 기술 사회의 다양성, 젠더, 포용적 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는 포럼 및 강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디지털 이해 교육(소양과 관점 함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디지털 이해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에 주목하는 동시에, 해당 역량에서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 과제 목차

- 디지털 성별 역량, 청소년기 이후에 “여성 < 남성” 으로 역전
- 젠더불평등한 기술의 이해와 콘텐츠 제공 사업
- ICT 산업 분야, 여성은 여전히 부족
- ICT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노력
- 여성시민의 디지털 이해증진, ICT 청년여성 지원을 함께

## 디지털 성별 역량, 청소년기 이후에 “여성 < 남성”으로 역전

OECD 국가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성인 남녀 간의 격차가 OECD 평균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평균 성인 남성 267점, 여성 265점 / 한국 성인 남성 276점, 여성 269점) 이러한 성별 간의 격차는 25-44세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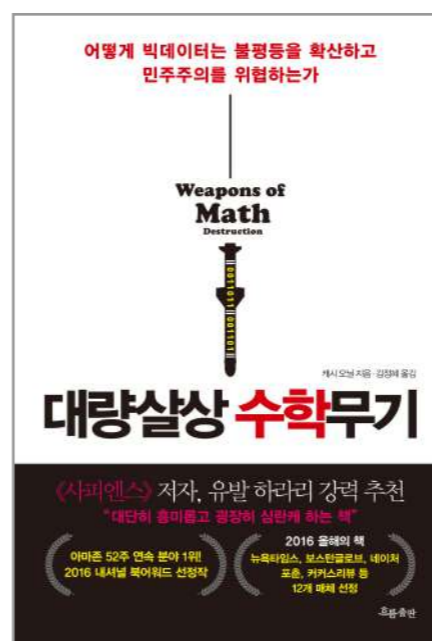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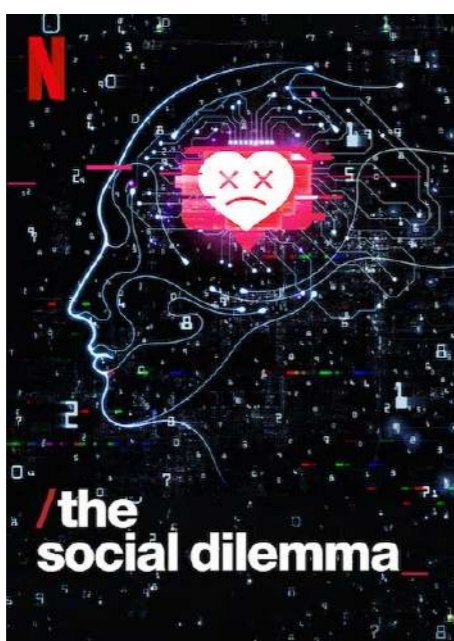


2018년부터 진행한 국내 청소년(초·중등)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결과에 따르면 매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이후 연령대에 진입하면서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성별 간 역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필수적인 시민 역량에 해당한다. 즉, 해당 역량에 있어 성별 간 격차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배경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인의 디지털 이해 역량 강화, 특히 여성 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 디지털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여성 시민의 참여 독려

2021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기술 분야의 젠더 격차 및 알고리즘의 편향을 다룬 도서를 선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총 4회로 진행된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총 116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약 86%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89.3%였으며, 향후 디지털 기술의 심층 분석과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제와 융합하여 하반기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였다. 현재 하반기 프로그램(기술 인문 아카데미)은 해당 분야 전문 연사의 주제 강연 후, 참가자의 주체적인 학습을 위해 관련 콘텐츠 추천을 기획하여 운영 중이다. (11월 중 종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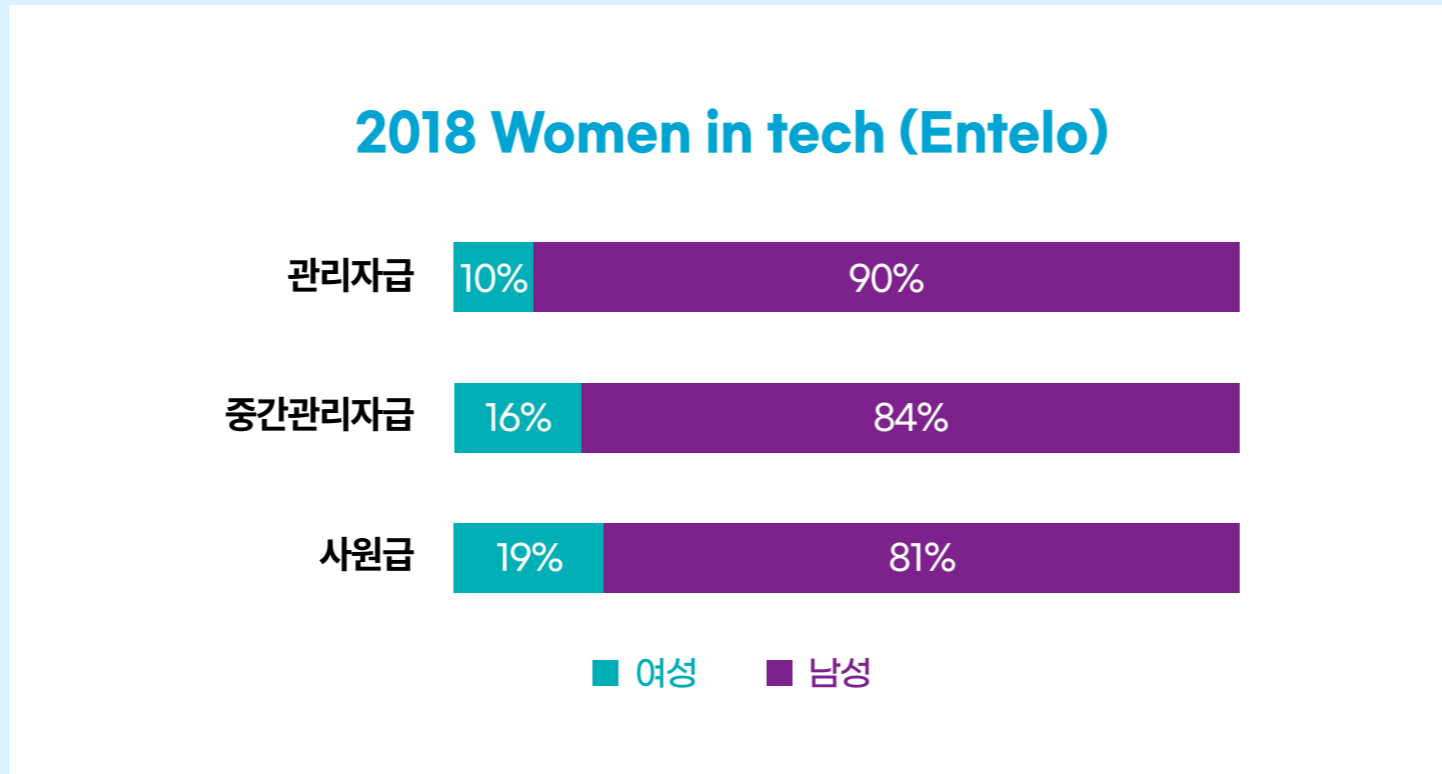
### 상반기 「기술시대 책으로 읽기」 진행 콘텐츠



## ICT 산업 분야, 여성은 여전히 부족

시민 디지털 역량 성별 격차뿐만 아니라, ICT산업 내 고급 디지털 기술 역량을 보유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 역시 우려 해야할 사안이다. ICT산업은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등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분야이나, 여성 비율은 전체 재직자의 20% 가량에 머물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성종사자 수가 많은 대면서비스 산업 분야는 축소된 반면, 여성 종사자들의 비율이 낮은 ICT산업과 같은 분야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경기 위축으로 0.7% 감소한 반면, 국내 SW 생산액은 오히려 작년 상반기 대비 0.2% 상승했다. 반면 SW 여성 전문인력은 2019년 21.4%에 비해 오히려 2020년 20.9%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에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ICT 산업 분야 내 여성의 낮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유럽의 경우 ICT 전문가 중 17%(2020 통계), 미국은 약 25%로 추산되는 등 국내 통계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보편적인 STEM 분야와 같이 관리자급의 위치에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사원급 19%, 중간 관리자 16%, 관리자급 10%로 ‘새는 파이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ICT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노력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STEM 분야 전반의 여성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관련 연구 기금 조성, 여성 교수진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경우, 직업 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이 주관하여 2017년부터 빅데이터 분석가 과정(데잇걸즈)과 SW 강사 양성 과정(코듀에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 연계와 현장 투입이 가능한 강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ICT 분야 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경우 사업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여, ‘W-Bridge’ 온라인 채널을 개설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이 STEM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취·창업연계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IT기업에서도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글의 여성 소프트웨어 캠프에서는 여성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 개발 및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장벽없는 코딩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AI 분야 기술 교육 및 인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잇걸즈 홍보 카드뉴스



코뮤티에이스 홍보 카드뉴스



W브릿지 플랫폼 홍보 카드뉴스



**여성시민의 디지털 이해증진, ICT 청년여성 지원을 함께**

앞서 살펴본 것처럼 ICT 분야 여성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여성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스페이스 살림의 자원을 활용하여 ICT 청년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주 여성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통한 멘토링 세션, ICT 분야 재직자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기술 소양 및 관점 교육 세션, 해당 사업 연도에 맞춘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 등 우리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CT 여성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여성 시민의 디지털 이해 증진 역시 중요한 키워드이다. 금년 수행한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중요 디지털 분야 주제를 선정한 아카데미 운영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 결과의 확산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화 또는 유관 온라인 교육 채널과 연계하여 사업 결과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향후 기술 분야의 성평등을 위해 기술을 이해하는 폭넓은 관점을 키우고, 한편으로는 ICT 분야의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페이스 살림은 2020년 준공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성 창업 지원 공간이지 시민들의 휴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이다.

## 참고문헌

- 서울디지털재단(2021). 해외 디지털 역량 모델 사례 및 정책 시사점
- 이철현(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소고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현황 및 발전 방안 탐색 (포럼 자료집)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1). SW산업통계(SW인력통계, SW생산현황 2019-2020)
- Mckinsey&Company(2021). How COVID-19 has pushed companies over the technology tipping point – and transformed business forever
- OECD (2019).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 OECD(2018). Bridging the digital gender divide
- 동아일보(2021.9.21.). 마이크로소프트, 여성 IT기업가 양성.. ‘장벽없는 코딩’ 프로그램 운영
- ISE(2020.10.1.). The latest stats on women in Tech
- 테크월드뉴스(2019.9.18). ‘구글 여성 소프트웨어 캠프’ 4기 모집 시작
- 동아사이언스(2021.3.29.) 여성과기인 성자지원 온라인 플랫폼 ‘W-브릿지’ 29일부터 운영
- 전자신문(2021.9.8.). 과기정통부·NIA, 디지털 대전환 이끌 SW여성인재 양성 나선다